최근 급속한 네트워크 및 휴대용 전자기기의 발달로 사람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연스럽게 이에 따라 줄임말, 야민정음 등의 통신언어가 발달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전에도 이러한 은어 사용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산(山) 이 네 개다” 는 “출출(出出) 하다” 처럼 쓰인다고 한다. 이번 글쓰기를 통해 평소에 문제 삼지 않았던 통신언어의 득과 실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다. 과연 어떤가, 간편하고 재밌기만 해서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하지만 통신언어에 대해 더 찾아보니 통신언어의 오남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에 대해 네 가지 사례를 통해 나의 견해를 말해 보겠다.

첫 번째로, 통신언어의 과도한 사용은 sns를 즐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평소 나는 통신언어는 젊은 층이 아닌 중장년층과 노년층만이 소외되기 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sns를 전혀 하지 않다가 어느 날 sns를 본 적이 있다. 어떤 게시물에 댓글 작성자가 모두 “ㅇㄱㄹㅇ ㅂㅂㅂㄱ” 라고 적어 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댓글을 여러 개 찾아 보았으나, 그 뜻은 알 수 없었고, 그 후에 우연한 기회로 뜻을 알게 되었다. “이거레알 반박불가” 라는 뜻이었다. 외계어 같았다. 이렇게 뜻을 알 수 없는 통신언어의 사용은,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세대간 격차를 부추겨 더욱 더 세대 간 차이를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신언어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최근 유튜버 와 광고업계에서도 통신언어의 사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오조오억’ 과 ‘허버허버’가 그 예이다. ‘오조오억’은 “2017년 방영되었던 mnet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시즌2 7회에서 3차 평가인 포지션 평가 당시 있었던 '남성미 뿜뿜' 팀의 Get Ugly 무대 영상이 네이버 TV에 올라오자, 5월 20일 13시 21분에 달린 한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면서 유행어가 되어 더욱 널리 쓰이게 되었다” 라고 한다. 이는 평상시에 널리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렇게 유통업계의 홍보지에도 올라가게 되었다.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는지, 목적이 없게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의 사용은 곧 문제를 야기했다. 그 실상을 찾아보니, ‘오조오억’이란 말은 남성 혐오 커뮤니티에서 흔히 쓰인다고 한다. 따라서 홍보지에 ‘오조오억’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 성별 혐오의 씨앗이 된 것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쓸 말이 없다. 하지만, 그냥 쓰는 단어들에서는 혐오의 시작점이 될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통신언어의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허버허버’는 원래 전라도 사투리 '허벌나게' 를 변형해서 '굉장히', '많이'와 같은 부사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2017년 한 커뮤니티에서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 유행처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도 성별 간 혐오에 대한 용어라고 한다. 남성 혐오의 표현인 이유는, 첫째, 이 용어가 퍼지게 된 계기의 글이 특정 남성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남혐 성향 커뮤니티에서 남성혐오를 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된다고 한다. 사실 이는 통신언어의 잘못된 사용이라 보긴 힘들고, 성별 간의 혐오가 용어의 쓰임으로 표출된다고 한다. 때문에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 생각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하니 그냥 애초에 이러한 통신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고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세 번째로는 ‘~충’ 으로 끝나는 급식체가 있다. 예를 들어 급식충, 진지충, 선비충… 등등 이는 단어 뒤에 충만 붙이면 완성이 된다. 어떠한 사람을 놀리는 데에 사용되는데, 이는 실제로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충’ 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감도 별로일 뿐더러,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미 자체도 벌레라는 뜻이라 기분이 좋지 않다. 이도 자칫하면 혐오발언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미 인지하지 못했을 뿐 혐오발언이 맞다. 이 용어의 사용은 더욱이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틀딱충’ , ‘급식충’ 이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급식충이라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도 맞다. 따라서 급식체 같은 통신언어도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급식체와 관련하여 요즘 청소년들은 책보다 미디어에 먼저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디어 속 어휘를 더 빠르고 쉽게 받아들인다. 줄임말이 많고 늘 쓰던 용어만 사용한다. 따라서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통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맞춤법 등의 어휘력도 부족하게 된다. 네 번째로는 야민정음의 사용이 있다. 야민정음은 야구갤러리+훈민정음이라는 뜻으로, 디시인사이드의 야구갤러리에서 유래된 것인데, 단어의 모양이 비슷한 것들을 바꿔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스틴 비버는 ‘저스틴 뜨또’ , 광운대학교는 ‘팡운머학교’ , 세종대왕은 ‘세종머앟’ 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다. 이는 급식체보다는 덜 통용되어 쓰는 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사용한다고 해도 알아 듣는 사람과 사용해야 하므로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통신언어의 사용으로 청소년의 어휘 수준이 감퇴하고 있다. 기본적인 맞춤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띄어쓰기는 지켜지지 않으며, 아예 단어 자체의 의미를 모르며 쓰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글을 처음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사용은 복잡함을 안기며 제대로 된 개념을 심어주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신언어는 대체 왜 생겨났을까? 커뮤니티 용어인 ‘쓰니’ , ‘음슴체’ 등의 용어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았다. 우선 ‘쓰니’와 ‘음슴체’는 같이 쓰이는데, ‘쓰니’는 해당 글의 작성자, 즉 글쓴이를 지칭한다. 그리고 ‘음슴체’는 편의를 위해 말 끝에 ‘~했음’ 등을 붙이는 것이다. 첫째, 이러한 통신언어의 사용은 커뮤니티 내의 결속력을 높여준다. 커뮤니티 내에서 글쓴이를 ‘쓰니’로 부르는 것으로 인해 친밀한 커뮤니티 내의 질서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용하기 편리하다. ‘쓰니’는 작성자를 부르기 애매할 때 쓰기 좋고, 특히나 음슴체는 서술어를 줄여주어 글이 길어지는 걸 막아준다. 셋째, 다수의 사용으로 이제 인터넷 상에서 통용되어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사용한다. 실제로, 음슴체는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학교 에브리타임만 들어가도 음슴체와 ‘쓰니’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결론적으로, 통신언어는 그 원래의 목적으로 쓰이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 ‘쓰니’, 음슴체 정도의 사용은 친근한 인터넷 상에서의 친목활동을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극성향 커뮤니티에서의 지역갈등 조장 혐오표현, 비하 발언 등의 발전으로 세대간 혐오(급식충, 꼰대충) , 성별간 혐오가 조장되기도 한다. 또한 원래의 의미에서 혐오 표현으로 퇴색된 단어들(오조오억)도 있다. 또한 눈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소외되기 쉽고, 청소년들의 어휘 수준이 감퇴한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난 이러한 통신언어의 사용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의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서로서로 혐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통신언어의 사용을 반대하는 바이다.